

〈2023 유네스코 교사 포럼〉¹ 안내

1. 배경 및 목적

- 유네스코가 상상하는 『교육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유네스코는 2021년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하 『교육의 미래』)보고서를 발간하여 인본주의에 기초한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을 체결할 것을 촉구
 - (‘파괴적 전환’의 4가지 영역)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 기술, 정치, 일(work)을 향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4가지 영역으로 주목하며, 이러한 파괴적 전환(disruptive transformations)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교육의 변혁을 주장
 - (학교 및 교사의 역할과 책임) 본 보고서는 미래 사회에서도 학교의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 사회의 변혁을 견인할 주체이자 △ 전문화된 교육 행위자로 교사의 역할을 강조. 이를 위해 교사에게는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고, 전문성 인정과 지위의 강화가 필요하며, 집단적 실천(collective action)을 위한 새로운 책임을 부여할 것을 촉구
- 미래 사회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
 -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부(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자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 생태전환교육, △ 민주시민교육,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의 혁신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학습자 및 학교 자율성 강화) 본 교육과정은 △ 진로연계학기제(상급학교 진학 전 2학기) 신설 및 자유학기제(중학교) 강화, △ 고교학점제(고등학교) 시행을 통해 학습자 주도성과 학교 자율성을 강조
- 공존과 상생의 학교를 향한 유네스코학교의 변화 방향 모색

¹ 유네스코 교사 포럼은 1)제6회 유네스코 토크와 2)2023 유네스코학교 포럼을 동시에 지칭함

- (공존과 상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한위)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교육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에 주목
- (유네스코학교의 변화 모색) ‘2023 유네스코학교 포럼’에서는 유네스코학교가 강조하는 변혁적 교육²에 대한 전학교적접근(whole-school approach)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방송세션)

※ 제6회 유네스코 토크, ‘청년 교사, 공존의 교육을 말하다’

- ➔ 교육은 ‘가르침’(teaching)과 ‘배움’(learning)이라는 두 가지 행위의 상호 마주침을 통해 한 개인이 보다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은 두 가지 행위 주체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전제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이하 교육권)를 헌법에 명시하고, 학교교육(공교육)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증진하고자 한다.
- ➔ 2000년을 전후로 한국의 교육 영역에서 ‘학습’(배움) 담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습자 중심’, ‘자기 주도 학습’, ‘평생학습’ 등의 담론은 한국 사회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크게 신장된 개인의 ‘권리’ 담론의 확산과 함께 교육의 영역에서 팽창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함께 2010년 이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방 교육청들을 중심으로 제정되기 시작했다.
- ➔ 학습(또는 학습자)를 중시하는 담론의 확산은 그동안 권위주의적 교육을 상징했던 ‘교사’의 이미지에 덧씌워진 ‘가르침’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가르침이라는 행위는 배움에 대한 모종의 교육적 ‘책임’을 수반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책임이 ‘교권’, 즉 교사들의 제도적

² 변혁적 교육에 대한 유네스코의 단일한 개념 정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상정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불평등, 분쟁과 같은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며, 개인과 타자,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부정의한 구조와 가치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변혁적 교육의 목적은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권한’이나 문화적 ‘권위’를 통해 주로 이행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가르침의 약화는 행위 주체인 교사의 교권 축소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인 배움의 주체, 즉 학습자의 교육권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 2023년 교육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교육적 책임의 약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자신의 학급 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또다른 초등학교 교사, 자신의 자녀를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유명 웹툰 작가 등의 사례는 학교 현장에서 상실했거나 표류하고 있는 교육적 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에게는 이제 교육적 책임 대신 개별화된 사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 ➔ 제6회 유네스코 토크는 교육적 책임을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교육 주체들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교육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공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공존 가능한 학교의 모습을 변혁적 교육의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예비교사인 교·사대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오늘날의 교육 이슈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점을 현직 교사들과 공유한다.

2. 행사 개요

- 일시: 2023. 10. 20.(금) 13:00 - 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12동, 9동)
- 주제: 함께 그려보는 공존의 학교
-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참가: 80명
 - 유네스코학교 교원: 40명
 - 현직·예비교사 등: 40명
- 참가 신청
 - 신청 기한: ~10월17일(월)까지
 - 신청 링크: <https://forms.gle/6uzEPA26D7G38Rha9>
 - 결과 발표: 10월 18일 (수) (*문자를 통하여 개별공지)
 - 선정 고려 사항: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과 논의 거리를 제시한 응답자

● 프로그램

개회	13:00 - 13:10	개회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12동
방청세션	13:10 - 15:30	제6회 유네스코 토크(*실황 녹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12동
토론세션	15:30 - 18:00	유네스코학교 포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9동

● 출연(*제6회 유네스코 토크)

- 사회: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MBC 100분 토론 진행자)
- 대담
 - 변진경 시사IN 사회팀장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

3.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개회	13:00 - 13:10	개회사 -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방청 세션	제6회 유네스코 토크(*실황 녹화)	
	13:10 - 15:10	청년 교사, 공존의 교육을 말하다 - 사회: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MBC 100분 토론 진행자) - 대담 ● 변진경 시사IN 사회팀장 ●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장
	15:10 - 15:30	전체 사진 촬영
토론 세션	2023 유네스코학교 포럼	
발제	15:30 - 15:50	『교육의 미래』와 공존의 학교 - 발표: 정용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 선임전문관
	15:50 - 16:00	휴식 및 그룹별 이동

그룹토론	16:00 - 17:20	공존의 학교로 유네스코학교 상상하기 - 참가: 초등/중등/고등 그룹별 교사
	17:20 - 17:30	휴식 및 이동
전체토론	17:30 - 18:00	논의 결과 공유 및 제언

4. 비고

- 참가자 중식 제공
- 유네스코 토크 대담자는 유네스코학교 포럼 그룹별 토론 진행자로 참여
- 유네스코학교 교사 외 현직·예비교사는 유네스코학교 포럼 참관 가능

5. 문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 (talk@unesco.or.kr)

